

외식제약, 외식동기, 외식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론구조모델 개발과 관계 탐색*

Relations among Eating-out motivation, Eating-out Constraints and Eating-out Participation: Theoretical and Structural Modeling

趙文秀** · 李晟銀*** · 李永蘭****

Cho, Moon-Soo · Lee, Sung-Eun · Lee, Young-Ran

ABSTRACT

In the foodservice research area,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concerned with restaurant choice attributes based on consumer behavior theory bu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the intrinsic motivation or constraints related to eating-out activ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build a conceptual structural model through related literature reviews, to verify a supposed model and hypothesis and to evaluate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The total 1394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May 20, 2008 to June, 10.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pposed model was accepted restrictively i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ly, intrapersonal eating-out constraints had strong negative effect on the eating-out participation. Third, interpersonal eating-out constraints didn't have any relation(+, -) to eating-out motivation, but the other constraints had positive effect on the motivation.

핵심용어(Key words) : 외식제약(Eating-out constraints), 외식동기(Eating-out motivation), 외식참여(Eating-out participation),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기초연구 과제지원인문사회-B00815).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관심분야: 호텔경영). e-mail: chomns@chej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강사(관심분야: 책임관광). e-mail: selee3427@hanmail.net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관심분야: 서비스경영). e-mail: ran0106@chol.com

I. 서 론

우리나라 국민 여가생활에서 외식은 2006년에 세 번째, 2007년에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외식은 밥을 먹는다는 것에서 나아가 즐거움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바뀌고 있고, 여가 시간에 문화활동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식은 여가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외식과 여가의 관련성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윤지환, 2004; Finkelstein & Rob, 2006).

국내 외식산업은 가정식 대용식품이나 배달음식 증가, 패밀리 레스토랑 및 외식 브랜드 선호, 퓨전 푸드 증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윤지환, 2004), 최근 내수경기침체와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경향신문, 2008.9.16.). 이런 시장의 기회와 위협 환경 속에 외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전략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외식분야 연구가 '왜 외식을 하고, 못 하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물음에 충분한 설명을 못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외식의 근본적 이유인 외식동기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개별적 접근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지만(Batra & Ahtola, 1991; 김홍범·허창, 1997; Park, 2004; 김석준·조용범, 2006; 고재윤·송학준·우주리, 2007), 외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식제약이라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외식동기나 외식참여와 같은 개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외식제약이란 개념이 어떤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이런 논의에 근거하여 외식동기나 외식참여와의 관련성을 이론구조모델로 설계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논의는 외식소비자 행동에 대한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식제약을 개념화하고 외식동기, 외식참여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외식제약 개념의 이론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외식분야의 이론연구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외식과 여가

오늘날 외식형태의 변화로 인해 외식은 단순하게 장소에 의한 구분으로서 가정 밖에서 사먹는 식사(손일락, 1993; 신재영·선동규·김의근·최창권, 2000)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최근 외식의 정의는 가정 외 음식점에서의 식사 또는 가정 내에서의 택배 및 주문에 의한 식사로 보고 있다(조문수, 2003; 윤지환, 2004; 강대훈, 2005). <그림 1>에서 볼 때, 외식은 금전지불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결과는 음식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식행동은 소비를 동반하는 활동이므로 외식산업 및 사업 차원에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손일락, 1991; 신재영 등, 2000; 김광득, 2000; 김영찬, 2002). 외식을 여가행동 차원에서 고찰할 경우 여기는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감안한 활동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 보다 외식행위자의 근본적 행위 원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금전 지불 조건 이외에 외식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제약하는 요인들인 제약요인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된다.



자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1> 외식과 여가의 개념 비교

위 그림에서 어떤 시간이 의무시간이 자유시간인가는 가변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여가는 직업노동,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행위자의 자유의지 즉, 지각된 자유감(perceived freedom)을 느끼면서 기분전환, 휴식 등을 위한 활동

(Dumaedier, 1974; 윤지환, 2004; 고동우, 2007)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가와 외식의 관계는 대부분 여가유형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행행동의 유형으로 외식(서태양·차석빈, 1999; 오상훈·임화순·고미영, 2006)은 앞의 그림처럼 여가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한 여가유형 구분은 대부분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외식이 어떤 유형에 속해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가체험의 한 형태로 외식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고동우(2007)는 외식을 강한 안정감, 약한 재미를 주는 여가체험이고, 높은 지속가능성, 매우 높은 반복가능성이 있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외식이 행위자의 주목적 활동이 초기에는 강하지 않고, 애초에 목적을 두지 않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 활동이 초기에 강하여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식을 여가행태로 분류할 경우 외식초기 목적성이 낮더라도 체험 과정에서 그 목적성이 강화되는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Rojek, Shaw, & Veal(2006)은 여가의 한 형태로 외식을 고찰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외식은 여가산업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 전제하고, 오늘날 음식점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 외식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장소라 제시하고 있다(Finkelstein & Rob, 2006)

2. 외식제약의 개념화와 외식동기, 외식참여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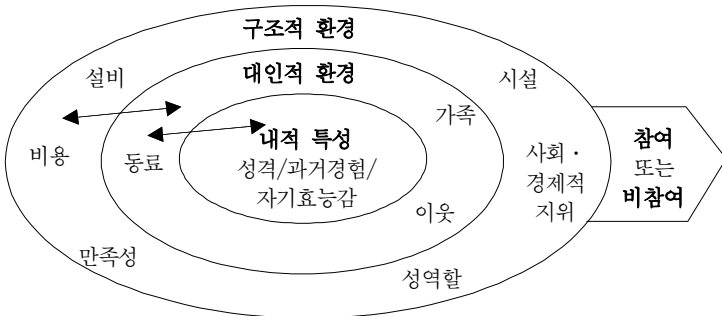
1) 외식제약의 개념화

외식이나 음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Cullen(1994)과 같은 연구자들은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가정단위의 외식이 제약받는다고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단지 재정적 문제만 외식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림 1>을 참고할 때, 외식제약도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제약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식제약은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자 그대로 한다면, 외식을 제약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여가제약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Crawford & Godbey(1987)는 여가를 제약하는 요인은 개인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요인 세 가지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여가제약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 후 여가제약은 단순히 여가참여

를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타협 또는 균형모델(Crawford, Jackson, & Godbey, 1991)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가제약과 동기나 만족 등 여가행동과 관련된 변수와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Henderson, 1997), 여가제약 개념은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과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런 논의는 여가제약이 단순히 심리적 과정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 또는 환경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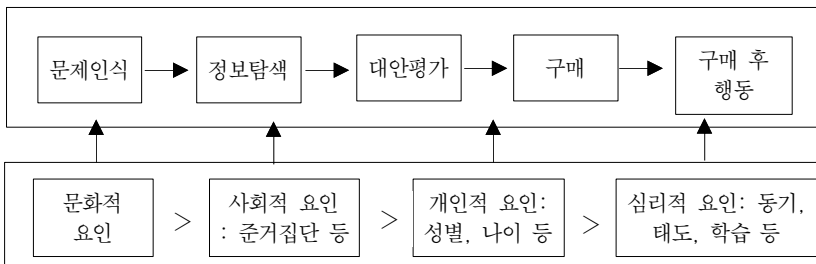
그래서 당초의 여가제약의 의미는 여가경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Crawford & Godbey, 1987)라고 정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여가행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Raymore, 2002). 이런 연구에서 여가제약요인은 다른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여가촉진요인은 여가참여를 강화하거나 장려하는 요인들로(송영민 · 이훈, 2006), 여가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환경적 조건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인간의 환경적 차원에서 시작된 바, 사회구조 본연의 기능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제약도 하지만 다른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구조화이론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정란수 · 이훈 · 이인재, 2007). 그래서 <그림 2>에서 볼 때 구조적 환경 안에 대인적 환경이 위치하고, 또 대인적 환경 안에 개인의 내적특성이 위치하게 된다.



자료: Raymore(2002), p.43.

<그림 2> 생태학적 관점의 여가제약 구조

그리고 소비자행동 차원에서 외식제약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외식제약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음식섭취 관련 장애요인에 대해 접근한 연구가 있는데 저소득층이 건강식을 섭취할 때 주요 장애요인은 시간과 재정적 문제이고, 촉진요인은 관련 보조 프로그램 같은 제도적 요인이며, 소득과 인종에 따라서 동기가 다르다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Eikenberry & Smith, 2004). 이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못 먹는 문제에서 구조적 요인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가제약 논의가 초반에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가 사회·환경적 차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때, 외식제약도 <그림 3>과 같이 소비자의사결정의 영향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식제약을 개념화하면, '외식소비자가 외식을 즐기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적, 대인적, 구조적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료: Kotler, Bowen & Makens(1999), 유필화·김용준·한상만(2005) 참고 재구성

<그림 3> 소비자 의사결정과정과 영향요인

2) 외식제약과 외식동기의 관계

외식제약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면서 외식제약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외식제약 개념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외식제약과 외식동기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외식을 여가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면, 동기와 제약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의견(Jackson *et al.*, 1993)이 폭넓게 지지되고 있다.

왜 동기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욕구가 있기 때문으로, 동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에너지가 동원된 상태를 말한다(Kotler, 2000; 유필화 등, 2005). 관광동기의 경우 다양한 관광객과 관광목적지에 적용되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Crompton, 1979; Dann, 1981; Iso-Ahola,

1982; Mill & Morrison, 1998). 그러나 외식동기에 대한 접근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외식동기는 경제적, 효율적, 재미, 맛, 사회관계 등과 같이 다양하며(Powers & Barrows, 1999), 외식소비자들은 배고픔, 편의,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사회적 관계, 분위기 등을 추구하기 위해 외식을 한다. 배고픔, 편리성, 효율성 추구는 목표지향적 행동으로, 위락적, 경험적 외식은 행복지향적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외식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신기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Batra & Ahtola, 1991; Park, 2004).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욕구를 강조하는 외식시장을 'dining market', 생물학적 욕구를 강조할 경우 'eating market'으로 구분하기도 한다(Powers & Barrows, 1999).

외식동기에 대한 접근은 외식소비자가 레스토랑을 선택하기 전에 특정 외식동기를 갖게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런 외식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레스토랑은 외식소비자의 선택대안으로 고려되고, 외식동기는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Khan, 1991; 임종원, 1998) 외식동기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동기는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개인적 욕구로도 논의되기 때문이다(Assael, 2001).

다수 연구자들은 외식동기가 개인적, 심리적 내적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외식동기는 식도락성, 편리성, 유행성, 사교성과 같은 차원(김홍범 · 허창, 1997; 백용창, 2001; 윤태환, 2005)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외식하는 이유는 계절, 월, 요인, 시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한 내·외적 동기요인이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조문수, 2003).

여가제약은 여가동기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Carroll & Alexandris, 1997), 여가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실증연구에서는 규정하고 있다(Losier, 1993; Alexandris, Tsorbatzoudis, & Crouios, 2002; 안병욱 · 이경준 · 이지성 · 김지태, 2006; 김찬선 · 안황건, 2007). 외식제약이 외식을 즐기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적, 대인적, 구조적 요인이라면, 이 변수는 이미 외식소비자의 의사결정 단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 문화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변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 문화적 변수의 위계는 심리적 변수를 포괄하게 되므로(Kotler, 2006), 외식제약은 외식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외식제약요인은 외식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외식제약과 외식참여의 관계

외식제약은 단순히 외식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가제약과 여가참여가 항상 반비례가 아니라는 점(Shaw, Bonen & McCabe, 1991; Carroll & Alexandris, 1997)을 볼 때, 외식제약이 있으면 단순히 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해당 제약을 극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계적 여가제약 모델을 개발한 Crawford *et al.*(1991)은 타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모델을 더욱 확고히 하였고,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장호찬·라선아, 2008).

Carroll & Alexandris는 내재적 제약은 여가참여와 매우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대인적, 구조적 제약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게 나타나 제약 유형에 따라 여가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균형이론이 나오면서 여가참여는 제약의 존재여부 보다 협상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Crawford *et al.*, 1991; Jackson *et al.*, 1993)이 폭넓게 지지되고 있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여가제약은 여가동기와는 달리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형성되는 조건이며, 여가제약의 다른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여가촉진요인으로도 이해되고 있다(Raymore, 2002). 이런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외식제약요인은 외식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외식제약요인은 외식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외식동기와 외식참여

지금까지 외식동기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외식욕구에 의해 활성화 된 목적달성을 위한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논의되면서 어떤 동기가 존재하는지 분류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외식동기와 관련한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기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외식행위 그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와 외식행위결과를 목표로 하는 동기를 내재적, 외재적 동기로 구분한다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가동기에 관한 논의는 분류적, 구조적, 기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내재적 동기가 만족 또는 최적 각성수준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보다 더 우세하고 본질적이라고 가정(Iso-Ahola, 1982; Csikszentmihayi,

1990; 이유리·박미석, 2006)할 수 있지만, 여가체험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고동우, 2007), 여가체험 과정에서 내·외재적 동기의 우세 여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식동기도 내·외재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였다. 그래서 앞선 외식동기 중에서 식도락성이나 편의성과 같은 외식행위자의 행위 자체가 목표인 외식동기와 유행성이나 사교지향성과 같이 행위결과를 목표로 하는 외식동기로 내·외재적 외식동기를 개념화하였다.

여가의 한 형태로서 외식에 대한 참여는 제약인식과 관련된 동기의 상대적 강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여가참여에 대한 동기의 강도는 여가제약 인식에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긍정적인 관계도 나타낸다(Jackson *et al.*, 1993). 이런 관계는 보다 동기화가 많이 된 사람은 덜 동기화된 사람들보다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Raymore(2002)이후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 여가제약이론을 외식에 적용한다면, 외식동기는 외식참여의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외식동기는 외식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외식제약 요인 간 관계

외식을 제약하는 요인은 앞서 개념화한 것처럼 내적, 대인적, 구조적 외식제약 요인으로 구성된다. 위계적 여가제약모델 관련연구들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과 같은 순서로 제약이 극복되고 가장 상위의 제약요인이 내적제약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장호찬·라선아, 2008). 구체적으로 내적제약은 나머지 요인들에 비해서 가장 강력하고, 인간 내면과 가장 인접한 개념이며, 구조적 제약은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한다(Crawford *et al.*,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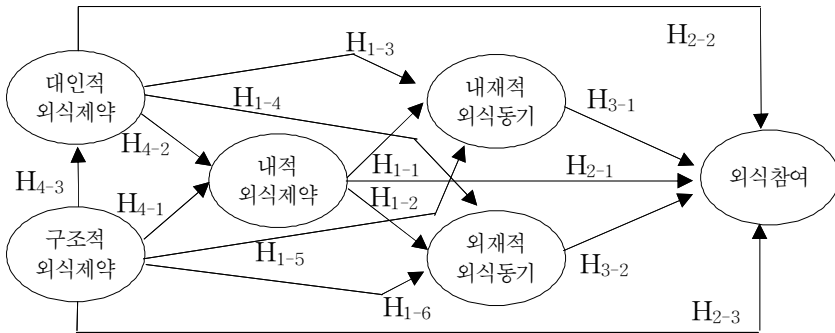
그러나 생태학적 여가제약 논의는 구조적 제약은 대인적 제약을, 대인적 제약은 내적 제약을 포괄하는 구조로 이들 간 관계를 파악한다(Raymore, 2002). 정란수 등(2007)의 연구에서는 내적 제약을 주관적 및 객관적 내적 제약으로 구분하여 객관적 내적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주관적인 내적제약과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여가제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볼 때, 구조적 제약이 내적 제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강석희, 1999), 구조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이 내적 제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외식제약 요인 간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구조적 외식제약과 대인적 외식제약은 내적 외식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델의 설계

현재 외식제약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모델은 앞서 개념화한 외식제약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외식동기, 외식참여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각 구성개념 간 관계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가설설정의 이론적 근거를 요약하자면, 외식동기는 여가의 한 형태로 간주할 경우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여가제약은 반드시 참여에 부정적 관계가 아니지만 관계가 있으며, 환경론적이고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구조적 제약이 대인적 제약에, 그리고 이 두 제약이 내적 제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그림 4>와 같은 연구모델을 설계하고 각 구성개념 간 경로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그림 4> 연구모델

2. 변수의 설계

각 문항은 <표 1>과 같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외식동기와 외식제약은 평소 외식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외식참여는 여가참여 관련 변수를 참고하여 외식활동 지속, 권유 등의 항목으로 설계하였다. 설문문항은 각 외식제약 12개, 외식동기 12개, 외식참여 5개의 총 29개 항목으로서 다중항목 척도 설계하였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1〉 측정변수의 설계

구성 개념	요인과 측정변수	변수설계를 위해서 참고한 선행연구	
외식 계약 (12)	내적 제약(4)	밖에서 식사를 싫어해서, 외식이 맛이 없어서, 시끄럽고 혼잡해서,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Crawford <i>et al.</i> (1991), Carroll & Alexandris(1997),
	대인적 제약(3)	동행자가 없어서, 외식제안을 못 받아서, 동행자와 시간이 안 맞아서	김유일 · 강석희(2000), Raymore(2002),
	구조적 외식계약(5)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외식장소의 접근성이 나빠서, 비용부담이 되어서, 일상이 바빠서, 외식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훈 등(2004), 김찬선 · 안황건(2007), 정호권(2007)
외식 동기 (12)	내재 추구성(3)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 다양한 요리를 접하기 위해	Khan(1991),
	재판의 추구성(3)	직접조리 보다 편해서, 시간절약을 위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Batra & Ahtola(1991), 김홍범 · 허창(1998),
	외재 추구성(3)	주위 평판 때문에, 타인 추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Powers & Barrows(1999),
외재 추구성(3)	동행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족이 즐기기 위해, 대접하기 위해	Park(2004), 고재윤 등(2007)	
외식 참여 (5)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할 것이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참여할 것이다, 금전 여유가 있으면 참여할 것이다, 타인이 제안하면 참여할 것이다, 외식이 즐거워서 참여할 것이다	Carroll & Alexandris(1997), 이선호(2007)	

3. 조사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외식계약, 외식동기, 외식참여 개념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합한 모델을 규명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5년 기준 전국 총인구를 전국 광역시·도별 인구 비율로 배분하여 각 지역별로 조사할 설문지 부수를 결정하는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은 연구자가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 대상 강의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생 중 각 지역별로 배분된 설문부수에 따라 각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하였다. 총 1,500부 중 1,452부가 회수되어 설문회수율은 96.8%이고, 모든 항목에 기입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1,394부가 채택되어 유효표본 채택률은 92.93%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공변량구조분석(SEM)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수집된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성별	남성	705 (50.6%)	서울	288 (20.7%)
	여성	689 (49.4%)	인천/경기	395 (28.3%)
연령 (mean = 39.5세)	15-19세	153 (11.0%)	충청/대전	146 (10.5%)
	20-29세	276 (198.8%)	경상/부산/대구/울산	373 (26.8%)
	30-39세	289 (20.7%)	전라/광주	137 (9.8%)
	40-49세	260 (18.7%)	강원	38 (2.7%)
	50-59세	220 (15.8%)	제주	17 (1.2%)
	60세이상	169 (14.1%)	학생	420 (30.1%)
월 평균 가정 소득	200만원 미만	344 (24.7%)	회사원/공무원	423 (30.4%)
	200-399만원	645 (46.2%)	자영업	199 (14.3%)
	400-599만원	273 (19.6%)	주부	193 (13.8%)
	600만원 이상	132 (9.5%)	1차산업 / 기타	159 (11.4%)

2.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외식예약 변수는 아직 측정도구로 정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으로 그 요인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FA의 요인 수 결정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였고, 배리맥스 직각회전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적재치와 공통성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고 누적분산설명력이 65.9%로 일반적 기준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설계한 5개 문항 중 3개는 '접근·비용제약'요인으로, 2개는 '시간제약'요인과 같이 분리되어 요인화되었다.

이들 변수를 CFA로 확인한 결과 표준적재치가 '비용부담이 되어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0.6이상으로서 나타났다. 개념구성 신뢰도는 0.546~0.624 수준이었고, AVE는 0.53~0.57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신뢰성 기준(0.7이상)과 AVE기준(0.5이상)에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ker,

1981; 김계수, 2007). 이는 향후 이론연구에서 측정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CFA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측정변수는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모델검증에 적용하였다.

〈표 3〉 외식계약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명	변수	EFA 적재치	공통성	eigen value (누적%)	CFA 표준 적재치	C.R	CCR (AVE)
개인적 제약	밖에서 식사를 싫어해서	.832	.699	3.345 (22.9%)	.788	-	.608 (.56)
	외식이 맛이 없어서	.727	.555		.619	19.594	
	시끄럽고 혼잡해서	.722	.543		.617	19.552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721	.541		.638	20.055	
대인적 제약	동행자가 없어서	.868	.775	1.954 (44.2%)	.796	-	.624 (.53)
	외식제안을 받는 경우가 없어서	.810	.702		.730	23.474	
	동행자와 시간이 안 맞아서	.764	.704		.723	23.355	
접근·비용 제약	외식장소의 접근성이 나빠서	.846	.784	1.512 (56.8%)	.736	-	.546 (.55)
	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845	.766		.844	17.773	
	비용이 부담되어서	.437	.410		.402	9.972	
시간적	일상이 바빠서	.874	.771	1.096 (65.9%)	.583	-	.567 (.57)
	외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848	.756		.954	7.628	

EFA 결과: KMO=0.738(Bartlett's test=4638.026, p=0.000).

CFA 결과: $\chi^2=463.874$, p=.000, GFI=0.950, AGFI=0.919, RMSEA=0.079, NFI=0.907, CFI=0.916

외식동기 문항에 대해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그 요인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FA의 요인 수 결정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였고, 배리맥스 직각회전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적재치와 공통성이 모두 0.4이상으로 나타났고 누적분산설명력이 64.9%로 일반적 기준을 상회하였다. EFA의 결과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설계에서 구성한 요인구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를 CFA로 확인한 결과 표준적재치가 모두 0.5이상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개념구성 신뢰도는 0.524~0.675 수준으로 AVE는 0.41~0.56 수준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신뢰성 기준(0.7이상)과 AVE기준(0.5이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추가적인 이론연구로 변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CFA 적합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외식동기 변수는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연구모델에 적용하였다.

〈표 4〉 외식동기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명	변수	EFA 적재치	공통성	eigen value (누적%)	CFA 표준 적재치	C.R	CCR (AVE)
내재	다양한 요리 먹기 위해	.842	.735	3.370 (28.1%)	.776	-	.634 (.43)
	특별한 음식 먹기 위해	.800	.684		.764	21.610	
	맛있는 요리 먹기 위해	.723	.569	1.382 (39.6%)	.605	19.262	.524 (.44)
	직접조리보다 편해서	.830	.702		.785	-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792	.630		.627	17.334	
외재	시간절약을 위해	.780	.629	1.182 (54.7%)	.667	17.623	.645 (.56)
	주위평판 때문에	.892	.824		.877	-	
	타인추천 때문에	.835	.763	.812	25.115		
	사람들이 많이 가서	.666	.532	.513	18.036		
	동행자가 원해서	.820	.682	1.232 (64.9%)	.631	-	.675 (.41)
가족이 즐기 위해	.795	.643	.619		13.002		
대접하기 위해	.512	.407	.516		12.395		

EFA 결과: KMO=0.750(Bartlett's test=4364.478, p=0.000).

CFA 결과: $\chi^2=232.777$, p=.000, GFI=0.972, AGFI=0.954, RMSEA=0.053, NFI=0.919.

CFI=0.954 (CCR: 개념구성 신뢰도, AVE: 분산추출지수)

외식참여 변수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 5〉와 같이 CFA와 EFA를 적용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누적분산설명력은 59.2%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CFA 결과는 표준 적재치가 모두 0.6를 상회하고 있고, 개념구성신뢰는 0.7이상, AVE는 0.5 이상이어야 바람직하지만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외식참여 5개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측정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없지만, CFA에 따른 모델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한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외식참여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명	변수	EFA 적재치	공통성	eigen value (누적%)	CFA 표준 적재치	C.R	CCR (AVE)
외식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	.816	.666	2.958 (59.2%)	0.818	-	.732 (.43)
	외식이 즐거워서 참여	.807	.652		0.716	21.294	
	시간 여유가 있으면 참여	.747	.658		0.624	23.426	
	금전 여유가 있으면 참여	.745	.555		0.630	22.907	
	타인이 제한할 때 참여	.727	.528		0.601	17.671	

EFA 결과: KMO=0.820(Bartlett's test=24355.084, p=0.000).

CFA 결과: $\chi^2=210.045$, p=.000, GFI=0.954, AGFI=0.862, RMSEA=0.032, NFI=0.935.

CFI=0.938

집중타당성은 CCR값과 AVE로 판단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 산출된 값은 집중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도구로 인정되고 있는 변수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향후 보완을 전제로 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간 상관계수보다 AVE의 제곱근 값이 크면 확보되는데(Fornell & Larker, 1981; 현용호, 2008) AVE의 제곱근 계산결과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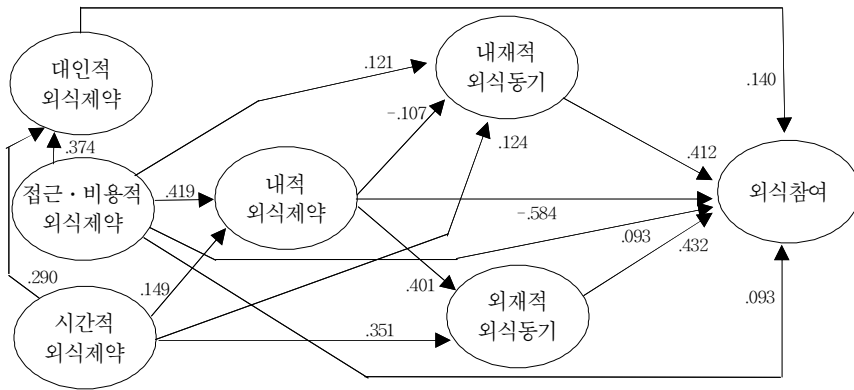
〈표 6〉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 분석

구 분	외식동기			외식계약				외식 참여		
	식도락	편의	유행	관계	내적	대인적	접근·비용		시간적	
	식도락	.655*								
외식 동기	편의	.132	.748*							
	유행	.157	.357	.663*						
	관계	.180	.421	.267	.640*					
외식 계약	내적	.209	-.046	.090	.064	.748*				
	대인적	.145	.071	.046	.085	.176	.728*			
	접근·비용	.167	.090	.057	.114	.196	.244	.742*		
	시간적	.128	.043	.109	.016	.329	.305	.068	.755*	
	외식참여	.074	.404	.228	.343	-.259	.117	.102	-.004	.655*

* : AVE의 제곱근

4. 모델과 가설의 검증결과

연구모델 검증결과, 모델검증에 필요한 모델적합도 지수($\chi^2 = 1383.345$, $p = .000$, $GFI = .911$, $AGFI = .879$, $RMSEA = .072$, $NFI = .840$, $CFI = .856$)는 SEM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본 연구가 개념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연구설계에서 제시된 4개 연구가설은 가설 3만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부분 채택되었다. 그리고 19개 세부가설 중 14개가 채택되었고, 5개 세부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SEM 논문에서 표준화계수와 비표준화계수가 함께 제시되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박희석, 2005)을 감안하여 〈그림 5〉에서는 표준화계수로 〈표 7〉에서는 비표준화계수로 표현하였다.



참고 : 그림에서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리고 모델과 가설 검증결과를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측정모델은 생략하고 이론모델만 제시함

〈그림 5〉 연구모델 검증 결과

〈표 7〉 연구모델 및 가설검증 결과

가설 및 경로	비표준화계수	C.R	가설검증
가설 1 : 외식제약 → 외식동기 : 부분채택			
1-1 내적 외식제약 → 내재적 외식동기	-.089**	-2.404	채택
1-2 내적 외식제약 → 외재적 외식동기	.188***	5.704	채택
1-3 대인적 외식제약 → 내재적 외식동기	.026	.075	기각
1-4 대인적 외식제약 → 외재적 외식동기	-.015	-.488	기각
1-5 접근·비용적 외식제약 → 내재적 외식동기	.078**	2.458	채택
접근·비용적 외식제약 → 외재적 외식동기	-.029	-1.121	기각
1-6 시간적 외식제약 → 내재적 외식동기	.077**	2.889	채택
시간적 외식제약 → 외재적 외식동기	.122***	4.984	채택
가설 2 : 외식제약 → 외식참여 : 부분채택			
2-1 내적 외식제약 → 외식참여	-.506***	-8.283	채택
2-2 대인적 외식제약 → 외식참여	.117***	3.245	채택
2-3 접근·비용적 외식제약 → 외식참여	.062*	1.944	채택
시간적 외식제약 → 외식참여	-.032	-.866	기각
가설 3 : 외식동기 → 외식참여 : 채택			
3-1 내재적 외식동기 → 외식참여	.427***	7.670	채택
3-2 외재적 외식동기 → 외식참여	.797***	3.590	채택
가설 4 : 구조적 제약 → 대인적 제약 → 내적외식제약 : 부분채택			
4-1 접근·비용적 외식제약 → 내적 외식제약	.324***	9.863	채택
시간적 외식제약 → 내적 외식제약	.110***	4.005	채택
4-2 접근·비용적 외식제약 → 대인적 외식제약	.301***	10.434	채택
시간적 외식제약 → 대인적 외식제약	.223***	7.397	채택
4-3 대인적 외식제약 → 내적 외식제약	-.017	-.464	기각

* : p<0.1, ** : p<0.05, ***: p<0.01

V. 시사점과 한계

1.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제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관계로 여기연구와 소비자행동 관련 논의를 토대로 개념화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외식제약을 외식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 중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요인이자보다 외식소비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외식을 즐기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외식제약은 외식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외식동기는 외식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관계 설정은 여가제약과 여가동기, 여가참여와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외식동기, 외식제약, 외식참여와의 관계를 이론적 구조모델로 설계하여 검증한 결과 연구모델은 한정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더 적합한 모델이 제시되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다. 대인적 외식제약은 내·외재적 외식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외식소비자 동기가 욕구에 의해서 추동되는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다른 사람들로 인해 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식도락같은 외식행위 자체에 관련된 동기나 사회관계추구 같은 외식행위 결과로 인한 동기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외식하지 못하는 경우 외식행동 자체의 즐거움은 감소하지만, 외식행동으로 인한 결과인 유행성이나 사회성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외식에 무관심한 외식소비자 또는 외식세분시장에는 맛이나 편의성 같은 특징을 강조하기보다 유행성, 사회성 같은 외재적 보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식참여에는 식도락, 편의성 같은 내재적 동기나 유행성, 사회성 같은 외재적 동기가 유사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외식업체는 외식소비자의 외식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 모두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맛이 있고 편의성을 강조하는 전략과 음식점의 명성과 사회적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의 무관심과 같은 외식제약은 외식참여를 감소시키고 있고, 외식할 시간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과 외식참여는 관계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외식할 때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과 접근성이나 비용으로 인한 제약은 외식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인적, 접근·비용적 외식제약은 외식참여를 위해 극복하고 노력하는 요인으로 외식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여가제약이 심리적 과정에서 느끼는 인식이 아니라 생태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인식되며 여가제약이 촉진요인화 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의 외식제약 개념은 내적제약은 외식참여를 실제 제약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대인적, 접근·비용적 제약요인은 외식동기와 함께 고려됐을 때 촉진요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2. 한계와 제언

외식분야 연구는 관광학, 경영학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거나 조리학, 영양학과도 관련되어 고유한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정유경·정원희·김영갑, 2007). 본 연구는 외식제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식제약 개념화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외식의 범위를 점심이나 저녁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설계하였다. 외식행동은 예측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심과 비교적 높은 저녁 두 상황 모두 발생하는 것이어서 상황적 모형이 예측력이 높기 때문에(Miller & Ginter, 1979; 조문수, 2003), 향후 연구는 저녁 식사 외식만 한정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델검증결과가 구조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통계적 검정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검증된 점은 한계로 남는다. 그리고 타이완 야시장에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가동기를 조사하는 연구(Chang & Hsie, 2006)처럼 아직도 외식행동 관련 변수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국내·외적으로 미흡하다. 이를 감안할 때 후속 연구가 외식제약, 외식동기, 외식참여 같은 개념의 측정변수를 정확히 도출하고 모형화하여 검증한다면, 외식분야 연구주제의 확대와 이론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식소비자의 연령이나 생애주기, 소득수준에 따라 외식제약, 외식동기, 외식참여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따라 관련 개념 간 관계가 어떻게, 어떤 집단에서 모델 적합도가 우수한지 등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외식제약과 외식소비자의 행동과 관련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는 작업도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도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과 외식시장의 경쟁 심화와 경기불황 현상은 외식

산업의 기회이자 위기요인이다. 그래서 외식동기나, 외식제약, 외식참여 논의는 이런 외식시장의 현황에서 외식참여를 유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장하고 있는 외식산업의 외식업체가 외식시장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대훈(2005). 외식사업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석희(1999).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동우(2007). 『여가학의 이해』. 서울: 세림출판.
- 고재운·송학준·우주리(2007). 외식동기를 통한 패밀리 레스토랑 여성고객시장 세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0(1), 71-89.
-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광득(2000).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 김석준·조용범(2006). 외식 동기와 레스토랑 속성 평가가 구전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2(3), 61-74.
- 김성혁·황수영·김용일(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레저스포츠 참여동기의 차이 및 참여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호텔관광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6(2), 35-50.
- 김영찬(2002). 외식산업 선택속성을 통한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서양식 프랜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일·강석희(2000). 여가활동참여에 있어서 제약유형의 위계적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8(1), 29-36.
- 김찬선·안황건(2007).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과 여가동기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273-285.
- 김홍범·허창(1997). 고객의 외식동기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차이: 외국 체인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2), 205-222.
- 박희석(2005).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한 관광학연구의 연구경향. 『관광학연구』, 29(1), 267-286.
- 서태양·차석빈(1999). 『여가론』. 서울: 대왕사.
- 손일락(1991). 『미래의 식당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 송영민·이훈(2006). 여가촉진요인의 구조모형 분석: 주5일수업제 청소년 여가환경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8(2), 7-24.

- 신재영·선동규·김의근·최창권(2000). 『외식사업경영론』. 서울: 백산출판사.
- 안병욱·이경준·이지성·김지태(2006). 페러글라이딩 참가자의 여가계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0, 225-236.
- 오상훈·임화순·고미영(2006).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 유필화·김용준·한상만(2005). 『현대마케팅론』. 서울: 박영사.
- 윤지환(2004). 『현대여가의 이해』. 서울: 일신사.
- 윤태환(2005). 외식동기와 일본음식점 선택속성과의 관계. 『외식경영연구』, 8(3), 47-66.
- 이선호(2007). 외식 신상품 개발의 고객 참여와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3(4), 199-210.
- 이유리·박미석(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계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20.
- 이인재·이훈(2006).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30(4), 339-357.
- 임종원(1998). 『현대마케팅론』. 서울: 백산출판사.
- 장호찬·라선아(2008). 『관광행동론』. 서울: KNOU Press.
- 정관수·이훈·이인재(2007). 여가계약모형의 비판적 재구성: 사회 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 『관광학연구』, 31(1), 55-75.
- 정유경·정원희·김영갑(2007). 외식경영관련 학술지논문의 동향분석: 외식경영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0(2), 73-91.
- 정호권(2006). 레저활동 제약요인이 참여 및 지속여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골프참가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7(4), 59-82.
- 조문수(2003). 『외식문화론』. 서울: 대왕사.
- 현용호·남장현(2008). 브랜드자산, 태도, 재방문 의도간의 구조모형분석: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비교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1(1), 33-5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 경향신문(2008.9.16). '먹는 장사 5곳 중 1곳 문닫는다'.
- Alexandris, K., Tsorbatzoudis, C., & Crouios, G.(2002).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233-252.
- Assael, H.(2001). *Consumer behavior & marketing action*. London: Thomson Learning.
- Batra, R., & Ahtola, O. T.(1991). Measuring the hedonic and utilitarian sources of consumer attitudes. *Marketing Letters*, 2, 159-170.
- Carroll, B., & Alexandris, K.(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 C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279-299.
- Chang, J., & Hsieh, A.(2006). Leisure Motives of Eating out in Night Marke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12), 1276-1278.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 119-127.
- _____,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Crompton, J. L.(1979). Motivations of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 408-424.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Cullen, P.(1994). Time, Tastes and Technology: The Economic Evolution of Eating out. *British Food Journal*, 96(10), 4-9.
- Dann, G.(1981). Tourist motivation: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8, 187-219.
- Dumazedier, J.(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 Eikenberry, N., & Smith, C.(2004). Healthful Eating: Perceptions, Motivations, Barriers, and Promoters in Low-Income Minnesota Commun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4(7), 115-1161.
- Finkelstein, J., & Rob, L.(2006). Eating out and the appetite for leisure. In Rojek, C., S. M. Shaw, A. J. Veal(eds.).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New York: Palgrave.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enderson, K. A.(1997). A Critique of Constraints Theory: A Respons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453-457.
- _____, Stalnaker, D., & Taylor, G.(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 69-80.
- Iso-Ahola, S. E(198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recreation travel. *Leisure Science*, 2, 45-56.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 _____, & Dunn, E.(1998). Inte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31-45.

- Jackson, E. L., & Scott, D.(1999). Constraints to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 for the twenty-first century*.Stag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Khan, M. A.(1991). *Concepts of Foodservice Operations and Management*.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8-38.
- Kotler, P., Bowen, J., & Makens, J.(1999).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New Jersey: Prentice Hall.
- _____ (2006). *Marketing Manag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Losier, G. F., Bourque, P. E., & Vallerand, R. J.(1993). A motivational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Psychology*, 127(2), 153-170.
- Miller, K. E., & Ginter, J. L.(1979). An investigation of situational variation in brand choice behavior and attitud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February), 111-123.
- Mill, R. C., & Morrison, A. M.(1998). *The Tourism System*, Iowa: Kendall/Hunt Publish, Co.
- Park, C.(2004). Efficient or enjoyable? Consumer values of eating-out and fast food restaurant consump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3(1), 87-94.
- Powers, T., & Barrows, C. W.(1999). *Introduction to Management in the Hospitality Industry*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Raymore, L. A.(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 Rojek, C., Shaw, S. M., & Veal, A. J.(2006).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New York: Palgrave.
- Samdahl, D. M., & Jekunbovich, N. J.(1997). A critique of leisure constraints: Comparative analyses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 430-452.
- Shaw, S. M., Bonen, A., & McCabe, J. F.(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86-300.

2008년 8월 1일 최초논문접수

2008년 8월 21일 1차심사완료 / 2008년 9월 13일 1차수정본접수

2008년 10월 3일 2차심사완료 / 2008년 10월 10일 2차수정본접수

2008년 10월 13일 최종심사완료 / 1회 편집수정

2008년 10월 17일 최종수정본접수

3인 익명 심사 畢